

한라시론



문 영 인  
제주농업생명과학박사연구회

올해부터 미국에서 생산되는 감귤류 중 제주에서 주로 재배되는 조생귤과 같은 만다린이라 불리는 궤이 관세 없이 수입되기 시작했다. 2012년 미국과의 무역협상 결과 높은 관세율로 시작해서 점차 낮아지다가 올해부터 무관세 수입이 시작됐다. 무관세 수입은 무려 13년 전 무역협상의 결과이며 그동안은 관세가 있어서 수입하지 않았던 것이다. 시내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수입 만다린은 1kg으로 포장된 상품이 1만2800원에 팔리고 있었으며 과일은 13개가 들어있었고 녹색의

미국산 만다린 수입은 2012년 결정됐다

꼭지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가 수확하는 방법처럼 인력으로 수확했기 때문에 판매가가 높게 형성된 것 같다. 품질은 당 함량 13.1%, 산 함량 1.1%였고 과육은 부드러웠으며 껍질의 색은 짙었다. 맛이나 신선도가 나쁘지 않았다. 소비자 가격은 제주산 만감류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다. 우려되는 점은 만다린을 선호할 새로운 소비자 층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도내 모기관에 보도내용 중 “제주산 만감류와 미국산 만다린을 비교 평가한 결과 제주산 만감류가 맛과 향 재 구매 의향 등 전반적인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식 후 재구매 의향에서 미국산 만다린은 2.4%에 그쳤다”고 했는데 좀 더 세심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오렌지가 처음 수입될 무렵 껍질을 벗기기 어려워 칼로 썰어먹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수입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연간 8만t 이상 수입돼 신맛을 싫어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오렌지는 감귤 상품출하량의 20% 이상으로 수입돼 소비되고 있음을 곱씹어봐야 한다. 만다린의 소비자 가격이 만감류 보다 높아, 만감류가 가격경쟁력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맛과 크기는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입맛에 맞을 것으로 보여 서서히 소비량이 늘어날 수 있다. 만다린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검역을 강화하라는 요구도 있는데, 정부가 마련한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잘 지켜지고 있으며, 2016년 건과류부터 시작해 2019년에는 국내생산과 수입농산물 전 품

목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잔류량이 검출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는 현재 모든 수입품목의 검역 기준이 됐다. 앞으로 산지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산 감귤처리실태분석’에 의하면 농협으로 계통출하한 물량은 전체 생산량의 28%에 불과해 유통업체가 많은 양을 처리하고 있다. 산지 가격결정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미국산 만다린 무관세 수입소식이 전해지면서 만감류 출하 초기에 가격을 전년보다 낮은 조건으로 구매하겠다는 풍문이 돌았었지만 점차 진정됐다. 산지 가격결정을 주도적으로 하려면 생산자와 농협이 노력해 계통출하 물량을 대폭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설

서민 등골 빼먹는 불법대부 처벌 엄중히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초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협박성 추심을 벌인 불법 대부업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최근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불법 사금융조직 총책을 포함한 10명을 검거했다. 이 중 3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7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와 강원 일대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402명을 상대로 875회에 걸쳐 불법 대부업을 일삼았다. 피해자 가운데는 제주도민 2명이 포함됐으며, 이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에 ‘무심사 단기대출’ 광고를 게재한 뒤 연락을 해 온 피해자들에게 연 41%에서 많게는 연 3만6500%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적용해 3억8000만원 규모의

불법 대부 및 추심을 진행했다. 이들은 담보나 심사 없이 돈을 빌려주는 대신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진 및 휴대전화 내 모든 연락처를 확보했다. 이후 돈을 갚지 못하면 SNS에 계약서 사진을 올리거나 가족과 지인들에게 빚을 갚을 것을 독촉하는 등 채무자를 협박했다. 살인적 고금리 불법 대부업 조직을 일망타진해 천만다행이다. 불법 대부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20대부터 50대까지의 자영업자와 생계형 대출 수요자들이다. 어쩔 수 없이 대부반을 수밖에 없는 약점을 악용해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파렴치한 행위는 엄중 처벌해야 한다. 일벌백계로 불법조직의 태생을 차단해야 한다.

제주 유가 안정화 대책 상시 가동해야

중동 사태 여파로 기름값이 요동치고 있다. 먼 땅에서 일어난 전쟁이 그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또 한 번 실감하게 된다. 어제(11일) 본보 1면의 먼 취 선 화물차량 사진은 업계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40여 년 경력의 화물차 기사는 “이런 유가 폭등은 처음”이라고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에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보다 어려움이 크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이들도 리터당 10원이라도 더 쓴 주유소로 운전대를 돌리는 마당에 화물차를 몰며 생계를 꾸려야 하는 노동자들의 마음은 오죽할까 싶다. 제주도에서는 연일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도민 편의와 주유소 간 공정한 가격 경쟁을 취지로 최저가와 최고가 정보를 하루 두 차례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내 대리점과 주유소에는 유류 가격 인상 자체를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도 이날 제주시 동 지역의 한 주유소를 찾아 유가 동향 등을 살폈다. 제주는 평상시에도 타 지역보다 기름값이 높은 편이었다. 이는 도민의 가계 부담으로 이어져 왔다. 2년 전 도에서 에너지민간감시단을 꾸려 정유사와 주유소의 유통 비용과 마진 등을 조사해 도청 홈페이지에 매주 공개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활동은 지속되지 못했다. 도에서 누차 밝혔듯 유가 상승은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합리적인 유류 가격이 매겨지도록 관련 대책을 상시 가동해야 하는 이유다. 정치인들도 선거철에만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제도적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

열린마당

‘주의’는 봄꽃을, ‘부주의’는 불꽃을 피운다

강 건 모  
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봄은 따뜻한 기온과 함께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계절이지만, 동시에 화재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시기다. 특히 영농 준비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소각 행위는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산불 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은 절대 안 된다. 농업 부산물은 파쇄하거나 수거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야외에서 흡연할 경우 담배꽂이는 반드시 완전히 끈 후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공사장에서는 용

점·절단 작업 전 주변 가연물을 제거해야 하며, 작업 후에도 일정 시간 이상 잔불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비도 중요하다. 주택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초기 1~2분의 대응이 피해 규모를 좌우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또한 산불 위험이 높은 날에는 입산을 자제해야 하며, 화재 발견 시 즉시 119에 신고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화재 예방은 최선의 대응이다.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가 이웃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출발점이 된다. 올봄에는 ‘절마’라는 안일함 대신 ‘혹시’라는 경각심으로 화재 없는 안전한 계절을 함께 만들어가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국힘의 민주당 후보 비판에 진보당 역공

사퇴 요구에 “후보 내지 말라”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인 민주당 제주지사 경선에 출마하는 오영훈 지사와 문대립 국회의원을 비판하며 현직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명호 진보당 제주지사 예비후보로부터 “국민의힘은 내란을 두둔했다”며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라는 비판에 직면. 고 위원장은 11일 “20% 감점을 받은 오 지사가 도정을 이어가는 건 책임 있는 지도자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데 이어, 25% 감점 대상인 문 의원에 대해서도 “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나서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고 비판. 반면 김명호 후보는 고 위원장 논평 발표 후 성명을 통해 “내란을 두둔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후보를 내는 건 예의가 아니다”고 직격. 이상민기자

제주시 외국인 보육료 첫 지원

○…제주시가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3월부터 첫 지원하며 해당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 11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고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외국인등록번호로 등록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0~5세 외국인 아동으로 지원 보육료는 월 10만원.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외국인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사업 내용과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신청은 행정기관 방문 없이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어린이집에서 가능하며, 지원 방식은 일반 부모 보육료 지원과 동일하다”고 설명. 백금탁기자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릉2리 응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모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하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모지전문    제주 토박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작명☆택일☆**

**사주☆운세 상담**

- 운명과 삶의 흐름을 명쾌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사주와 맞는 좋은 이름을 작명해 드립니다.

**사주 명리학 수강생 모집**

은퇴 없는 평생직장 역학상담사

1. 역학상담사 자격증반
2. 철학원 창업반(통변중심)

※ 개인교습으로 수시모집

☎ 연락처

**동방철학원**  
**064)759-4585**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도지부장 문학림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모지·문중모지**

**허가 대행**

-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 묘지관리·묘지보수
- 방묘·산담·잔디작업
-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 개장신고서 무료 작성 대행

장례지도사 **강 봉 호**  
(진주강씨 제주도총회 이사)  
010-5254-6661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 장 의 사**  
616-08-85402